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진아*, 홍지연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Jin-Ah Park*, Ji-Yeon, Hong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G시 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시행되었고 연구도구는 교수신뢰(PTS, Professor Trust Scale) 27문항, 정서조절 25문항, 자아탄력성(CD-RISC,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25문항,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p=.019$), 학년($p=.011$), 간호학과 선택동기($p=.003$),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p=.002$), 현재 건강상태($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교수신뢰, 능동적 정서조절,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관관계가 있었던 변수들과 일반적 특성 중 집단 간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전공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5.0%이었다($F=30.92$, $p<.001$).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지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내적 또는 환경적, 사회적 지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98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G city from April 10 to May 9, 2018. The research tools were used 27 items of Professor Trust Scale, 25 items of emotional regulation, 25 items of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and 18 item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p=.019$), grade($p=.011$), motivation of choosing a nursing($p=.003$), major satisfaction($p<.001$), stress of clinical practice($p=.002$), and current health status($p<.00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fessor trust, active emotion regulation,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and ego-resilience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were ego-resilience,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major satisfaction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by 55.0%($F=30.92$, $p<.001$).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urriculum/comparative programs and student coaching plans for improving ego-resilience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lso internal or environmental and so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negative emotions caused by various causes can be efficiently managed.

Keywords :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Emotions, Regul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본 논문은 호원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n-Ah, Park(Howon Univ.)

Tel: +82-63-450-7767 email: jinns@howon.ac.kr

Received February 26, 2019

Revised April 1,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학업이나 장래문제와 같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1],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대학생보다 학업문제에 있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고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 공부와 전공 외 수업, 학교생활 등 대학생활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업무 부담,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사회적 스트레스, 과도한 과제물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3].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또한 학업성취에 대한 염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발전과 성취감 정도는 높은 반면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부분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아수용성,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5] 한 개인 자신의 강점과 노력, 성장에 기초하여 사회에서 잘 기능하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6]. 대학생들이 겪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7] 간호대학생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활용 정도에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8].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대상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정서는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녕한 상태에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도와 전문직 간호사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전공만족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9]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하고[10]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2].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11]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정서 상태를 느끼게 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로 정서조절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정서조절은 다양한 정서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인 인지적, 행동적 반응으로 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능동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은 긍정적 정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개인의 적응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부정적 정서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14].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대학생활 중 간호대학생은 교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 교수의 지지 정도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달라지고 있었다[16]. 이는 간호대학생이 전공분야에 만족하고 적응하는 데에 있어 교수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최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관련 있는 변수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교수신뢰이다. 대학생은 교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며[17],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교수신뢰는 학업참여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은 학문적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17] 교수신뢰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업탄력성[9],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회복탄력성[19] 등 주로 개인적인 정서측면의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이었고 실제로 간호대학생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신뢰나 개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정서조절 양식 요인을 함께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와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자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G시 소재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1-β)=.95로 하여 필요한 표본 수 178부가 산출되었다. 통계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통계적 추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대수의 법칙에 따라 총 315부를 설문하였다. 회신된 306명의 응답자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1개 이상의 변수에 같은 번호로 응답한 8부의 응답지를 제외한 298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총 4개이며, 각 변인은 교수신뢰 27문항, 정서조절 25문항, 자아탄력성 25문항, 심리적 안녕감 18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10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교수신뢰

교수신뢰는 Jeong과 Park[17]이 개발한 교수신뢰 측정 도구(Professor Trust Scale, PTS)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측정값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신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80-.85이었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이었다.

2.3.2 정서조절

정서조절은 Yoon[14]이 개별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선택과 효과성을 살피기 위해 개발한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를 Lim[15]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능동적 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25문항이다. 측정값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점부터 ‘자주 사용한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은 역문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78-.82이었고 전체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2.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20]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Baek[21]이 번안한 한국형 코너-데이비슨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25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Baek[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2.3.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Keyes와 Ryff[22]의 단축형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Kim[2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18문항,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수량화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문은 역문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고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본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참여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짐과 연구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을 철회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도 없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기 기입식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결론

3.1 연구결과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05±1.54세로 여학생이 226명(75.8%)이었고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이 용이해서가 112명(37.6%)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만족

하는 경우가 123명(41.3%)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상 89명(29.9%), 중 176명(59.1%)로 90% 정도의 학생이 중 정도 이상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좋다 154명(51.7%)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72(24.2)
	Female	226(75.8)
Ages		21.05±1.54
Grade	2 nd grade	97(32.6)
	3 rd grade	104(34.9)
	4 th grade	97(32.6)
	Easy won't get a job	112(37.6)
Motivation of choosing a nursing	Have specialty	63(21.1)
	Economic stability	16(5.4)
	Professional	48(16.1)
	Scarcity value	3(1.0)
	School record	6(2.0)
	Recommendation of teacher, family etc..	50(16.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23(41.3)
	Moderate	161(54.0)
	Dissatisfaction	146(4.7)
Stress of clinical practice	High	89(29.9)
	Moderate	176(59.1)
	Low	24(8.1)
	Other	9(3.0)
Current health status	Bad	40(13.4)
	Moderate	104(34.9)
	Good	154(51.7)

3.1.2 대상자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호대학생의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교수신뢰 총점은 106.58±12.28점 이었으며, 정서조절 84.92±10.44점, 정서조절의 하위영역 중 능동적 정서조절 28.13±4.60점,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31.29±5.14점,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28.50±5.67점 이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89.39±12.46점, 심리적 안녕감은 64.83±8.2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298)

Variables	M±SD
Professor trust	106.58±12.28
Emotional regulation	84.92±10.44
Active emotion regulation	28.13±4.60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31.29±5.14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28.50±5.67
Ego resilience	89.39±12.46
Psychological well-being	64.83±8.22

Table 3. Differences in Professor Trust, Emotional Regulation,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ofessor trust			Emotional regulation		Ego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n(%)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35(13.0)	110.33±11.29	3.02 (.003)	85.25±11.08	0.31 (.761)	93.31±12.20	3.12 (.002)	66.81±8.41	2.36 (.019)
	Female	234(87.0)	105.38±12.27		84.82±10.25		88.13±12.30		64.20±8.07	
Grade	2 nd grade ^a	97(32.6)	106.00±12.53	7.81 ($<.001$) a,b<c	85.48±08.82	3.07 (.048)	89.37±13.29	6.03 (.003)	64.65±8.56	-4.35 ($<.001$)
	3 rd grade ^b	104(34.9)	103.67±10.94		82.96±11.53		86.51±12.42		63.67±8.07	
	4 th grade ^c	97(32.6)	110.29±12.54		86.46±10.50		92.53±10.89		66.25±7.89	
Motivation of choosing a nursing	Easy won't get a job	112(37.6)	105.91±11.91	0.71 (.640)	85.35±10.22	3.17 (.005)	88.57±11.67	2.48 (.023)	64.38±7.82	3.39 (.003)
	Have specialty	63(21.1)	108.67±13.51		87.19±10.03		92.80±12.11		67.13±7.72	
	Economic stability	16(5.4)	105.75±11.77		82.75±15.21		88.31±13.58		63.13±8.05	
	Professional	48(16.1)	107.83±12.02		85.88±08.94		91.67±11.51		66.94±7.86	
	Scarcity value	3(1.0)	109.00±07.00		91.00±08.19		97.00±10.53		69.33±7.86	
	School record	6(2.0)	104.16±08.57		72.00±09.53		83.50±11.05		59.16±7.99	
	Recommendation of teacher, family etc..	50(16.8)	104.66±12.55		82.06±09.86		85.40±14.17		64.83±8.22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123(41.3)	109.77±12.21	7.39 ($<.001$) b<a	87.79±10.41	9.74 ($<.001$) b,c<a	93.89±11.78	15.04 ($<.001$) b,c<a	67.96±07.87	17.39 ($<.001$) b,c<a
	Moderate ^b	161(54.0)	104.37±11.82		83.27±9.94		86.26±11.67		62.78±07.35	
	Dissatisfaction ^c	146(4.7)	103.93±12.65		78.64±10.13		85.57±15.46		60.79±11.58	
Stress of clinical practice	High ^a	89(29.9)	105.85±14.41	1.64 (.180)	83.79±11.17	3.18 (.024)	87.18±13.22	5.08 (.002) a,b<c	64.57±07.79	5.18 (.002) a<b,c
	Moderate ^b	176(59.1)	106.29±11.03		84.59±10.08		89.14±11.57		68.83±09.44	
	Low ^c	24(8.1)	111.83±11.33		88.70±09.08		97.54±12.02		72.00±05.85	
	Other ^d	9(3.0)	105.33±13.73		92.66±09.37		94.44±14.45		64.83±08.22	
Current health status	Bad ^a	40(13.4)	101.83±13.07	9.04 ($<.001$) a,b<c	82.77±11.99	5.19 (.006) b<c	84.10±13.46	20.03 ($<.001$) a,b<c	61.52±10.05	16.14 ($<.001$) a,b<c
	Moderate ^b	104(34.9)	104.35±11.67		83.00±09.46		85.26±10.43		62.43±06.55	
	Good ^c	154(51.7)	109.32±12.28		84.92±10.44		93.53±12.07		67.31±07.97	

3.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는 성별($p=.003$), 학년($p<.001$), 전공만족도($p<.001$), 현재건강상태($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학년에서 2학년, 3학년 보다 4학년이, 전공만족도에서 보통인 경우보다 만족인 경우, 현재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좋은 경우 교수신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은 간호학과 선택동기($p=.005$),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p=.024$), 현재건강상태($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보통이나 불만족인 경우보다 만족인 경우,

현재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보다 좋은 경우 정서조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성별($p=.002$), 학년($p=.003$), 간호학과 선택동기($p=.023$),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p=.002$), 현재 건강상태($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보통과 불만족의 경우보다 만족인 경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상, 중인 경우보다 하인 경우가,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자아탄력성이 더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성별($p=.019$), 학년($p=.011$), 간호학과 선택동기($p=.003$), 전공만족도($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p=.002$), 현재 건강상태($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보통과

불만족인 경우보다 만족인 경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상인 경우보다 중과 하인 경우가,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보다 좋은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3.1.4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은 교수신뢰($r=.34, p<.001$), 능동적 정서조절($r=.48, p<.001$), 지지추구적 정서조절($r=.32, p<.001$), 자아탄력성($r=.7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r=-.3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수신뢰는 능동적 정서조절($r=.36, p<.001$), 지지추구적 정서조절($r=.20, p<.001$), 자아탄력성($r=.4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r=-.14, p=.019$)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능동적 정서조절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r=.42, p<.001$), 자아탄력성($r=.66,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은 자아탄력성($r=.3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회귀분석 실시를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 되었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98)

Variables	Professor trust	active emotion regulation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Ego resilience
	r(p)	r(p)	r(p)	r(p)	r(p)
Active emotion regulation	.36 (<.001)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20 (<.001)	.42 (<.001)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14 (.019)	-.09 (.106)	-.08 (.161)		
Ego resilience	.46 (<.001)	.66 (<.001)	.31 (<.001)	-.18 (.002)	
Psychological well-being	.34 (<.001)	.48 (<.001)	.32 (<.001)	-.35 (<.001)	.71 (<.001)

3.1.5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던 교수신뢰, 능동적 정서조절,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자아탄력성과 일반적 특성 중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 간호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현재 건강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48-1.817, 공차한계는 .459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4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으며, 잔차의 표준화 예측값과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상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전공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30.92, p<.001$),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5.0%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N=29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s	15.65	3.86		4.06	<.001
Professor trust	-0.02	0.03	-.03	-0.67	.502
Active emotion regulation	0.05	0.10	.03	0.50	.617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0.14	0.07	.09	2.02	.044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0.30	0.06	-.20	-4.95	<.001
Ego resilience	0.34	0.04	.52	9.87	<.001
Major satisfaction	1.39	0.61	.10	2.27	.024
Current health status	0.73	0.39	.08	1.85	.066
Adj. $R^2 = .55, F(p) = 30.92(<.001)$					

3.2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교수신뢰는 총점 135점 만점에 평균 106(±12.28)점, 100점으로 환산 시 79점으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4학년이 2, 3학년보다,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Lee[24]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

점, Kim 등[18]의 연구에서 3.90점으로 나온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는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기초하여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25].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수-학생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학년의 경우 타 학년에 비해 수업 및 학과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와 접점이 증가하고 임상실습 및 전공교과목에 집중하면서 교수와 친밀해지며, 임상경력을 바탕으로 한 교수의 전문성과 지도력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면서 점차 교수가 역할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교수신뢰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영향 요인임[24]을 볼 때, 신입생 때부터 지도학생을 4년 간 전담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학생지도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조절은 총 125점 만점에 평균 84.92(±10.44)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 시 68점이고 전공 만족군이 보통, 불만족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학생이 75.8%인 것을 감안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지추구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26]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남자 대학생은 능동적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회피분산적 양식을 덜 사용할수록, 여자 대학생은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26].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양식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탄력성은 총 125점 만점에 평균 89.39 (±12.46) 점으로 100점 만점 환산 시 71점이고 전공 만족군이 보통, 불만족군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중, 상 집단보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았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100점 중 70점으로 나오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자아탄력성이 높았던 결과[11]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다는 보고[13]와 일치되었다. 이는 전공에 만족

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내적 신념이 강하고 쉽게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과도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10] 전공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 교과/비교과 활동 등을 간호학 교육 프로그램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총 90점 만점에 64.83(±8.22)점, 100점 만점 환산 시 72점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 대상의 Kim과 Seo[27]의 연구결과인 4.02점(5점 만점), Lee 등[19]의 연구결과인 3.82점(5점 만점)보다 낮았고 Jin과 Kim[9]의 연구결과인 3.42점(5점 만점)보다 높았다. 이처럼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차이도 있었으나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스트레스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8] 만큼 각 연구마다 자료수집 시기에 중간시험, 임상실습, 과제물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킬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사료된다. 또한 전공 만족군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중, 하인 집단,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에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가 내포되어 있다[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전공에 만족감을 느끼고 학업의 필수과정인 임상실습을 스트레스 없이 완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소속된 학과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교수의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16] 교수들이 임상실습 지도 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경청하고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학과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조절을 3개의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능동적,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빈도가 높을수록 교수신뢰,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졌고 반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은 교수신뢰,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능동적,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이 긍정적 정서성이나 개인의 적응에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부정적 정서성 또는 개인의 적응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15]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학생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보다 내적으로 좀 더 강인하고 독립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이 교수의 전문성이나 지도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가 간호대학생이 학업, 진로, 임상실습, 대학생활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학생 개인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되 적극적인 학생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려는 학생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전공만족도,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순이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 내적으로 학습되는 기술으로써 지도자나 멘토, 동료 등으로부터 격려되는 것이며[29],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27]. 이러한 관계를 볼 때 간호대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대학생활에도 잘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전공학습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자아탄력성 훈련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선후배 간 멘토링, 교수-학생 간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견고한 정서적 지지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조절 양식 중 특정한 정서 경험 상황에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회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성이 떨어진다는[15]. 본 연구 결과에서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은 심리적 안녕감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정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피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교수신뢰는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었으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생활에 있어 교수의 지지가 통제적인지,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에 따라 대학생의 심리적 요구충족 정도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30]. 따라서 간호학과 교수는 교육과 연구 외에 학생 지도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생과 형식적인 면담 빈도 증가가 아닌 면담기술과 태도에 대한 질적인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수신뢰, 정서조절, 자아탄력성 및 일반적 특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은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 이들 변수 중 자아탄력성은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내적 또는 환경적,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자의 역할이 학생지도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확인할 없었던 교수신뢰 변수를 중심으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강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S. Park, "Gender differences of perceived stress type, stress response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and vulnerability of personalit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118-128,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118>
- [2] S. K. Cha, E. 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 pp.650-658,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650>
- [3] J. K. Kim,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47-59,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47>
- [4] A. C. M. Freitas, R. M. M. Malheiros, B. S. Lourenço, F. F. Pinto, C. C. Souza, A. C. L. Almeida, "Intervening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Nursing UFPE online*, Vol.12, No.9, pp.2376-2385, 2018.
- [5]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7.6.1069>
- [6] C. D. Ryff,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69.4.719>
- [7] S. H. Shin, "Mediating effects of self-reassuring and self-attacking on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 pp.596-606, 2018.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8.18.01.596>
- [8]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312-32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9] J. I. Jin, N. C. Kim, "Grit, acade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3, No.2, pp.175-183, 201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2.175>
- [10] H. G. Son, S. H. Kwon, H. J. Park,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636-646,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5.636>
- [11]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12] C. L. Jew, K. E. Green, J. Krog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32, pp.75-89, 1999.
- [13] Y. K. Lee, H. Kim, "The relationship of ego resilience and involvement with the experience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4, pp.1953-1962,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1953>
- [14] S. B. Yoon,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types and antecedents of experienced emotions on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15] J. O. L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p.29-37, 2003.
- [16]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6.24.3.220>
- [17]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fessor trust scale (P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Vol.28, No.2, pp.405-426, 2009.
- [18] E. M. Kim, J. Y. Hong, E. K. Le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fessor trust on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357-365,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5.357>
- [19] Y. E. Lee, E. Y. Kim, S. Y. Park,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3, pp.385-393, 2017.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7.23.3.385>
- [20] K. M. Connor, J. R.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 Anxiety*, Vol.18, pp.76-82, 2003.
DOI: <http://dx.doi.org/10.1002/da.10113>
- [21] H. 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Seoul, Korea, pp.17-23, 2010.
- [22] C. L. M. Keyes, C. D. Ryff,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e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Psychosocial perspectives on caring for and contributing to the next generation*, pp. 227-26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 [23] S. J. Kim, *The effects of family therapists' specialty on their marital relationship and family's psychological health through their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06, 2009.
- [24] J. H. Park, E. K. Lee, "Influence of professor trust,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steem on satisfaction with major stud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9, No.1, pp.167-178, 2018.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8.29.1.167>
- [25] D. J. McAllister,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8, No.1, pp.24-59, 1995.
DOI: <http://dx.doi.org/10.2307/256727>
- [26] Y. M. Chae, S. J. Kwak,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4, No.5, pp.645-662, 2015.

- [27] Y. S. Kim, J. Y. Seo,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6, No.6, pp.1439-1452, 2015.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5.26.6.1439>
- [28] F. X. He, B. Turnbull, M. N. Kirshbaum, B. Phillips, P. K. Yobas, "Assessing stress, protective fact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68, pp.4-12, 2018.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8.05.013>
- [29] A. K. Harvey, "Reflection, resilience, relationships, and gratitude", *American Journal of Health-System Pharmacy*, Vol.75, pp.1185-1190, 2018.
- [30] B. Behzadnia, P. J. C. Adachi, E. L. Deci, H. Mohammadzadeh, "Associations between students' perception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terpersonal styles and students' wellness, knowledge, performance, and intentions to persist at physical activity: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Vol.9, pp.10-19, 2018.
DOI: <http://dx.doi.org/10.1016/j.psychsport.2018.07.003>

홍 지 연(Ji-Yeon Hong)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공(박사)
- 2009년 3월 ~ 2012년 2월 : 영진전문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감정노동, 시뮬레이션 교육, 기본간호

박 진 아(Jin-Ah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8년 8월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 간호학 중환자 전공(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공(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혈액종양, 비판적 사고, 질적연구, 임상수행능력